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심한 석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선 투표가 있었던 날, 미국령 자치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에 관한 이번 주민투표는 1967년, 1993년, 1998년의 투표와 동일한 것으로 이전의 결과는 계속해서 현 체제 유지였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61%가 미국의 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기에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6월,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여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가 되고자 한다면 미 행정부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성향을 띄고 있어 상하원 투표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200석으로 과반수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과반 이상인 51석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지지로 푸에르토리코가 큰 무리 없이 미국의 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경감, 실업률 감소에 필요한 경제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미국의 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사실만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에르토리코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익히 알려진 바가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의미는 최근 미국 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마약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보통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마약은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북미 지역과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중에서도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카리브 해 인근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마약이 미국의 남부와 동부, 그리고 유럽으로 운송되는 경로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2008년 마이애미에 주둔하는 제4함대를 재창설하면서 주장하였던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불법 이민 방지와 마약 퇴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역시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가 되어 연방정부와 함께 마약 운송 경로와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군사권과 외교권이 없는 푸에르토리코가 반드시 미국의 주가 되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콜롬비아와 칠레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좌파 성향의 정부이다. 그 중에서도 급진 좌파 성향을 보여주는 국가는 동시에 반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성향은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과 같은 연합을 만들어 지난 미주 기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쿠바 참여 불가에 보이콧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대 라틴아메리카에 강경책을 펼친 부시 정부와는 다르게 오바마 정부는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이주자와 라틴아메리카 정부와의 관계에서 훨씬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라틴아메리카의 반미·좌경화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만약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로 인정을 받는다면,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정부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찬성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제4함대 재창설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푸에르토리코가 자치 정부이기는 하지만, 2009년 미 연방정부에 약 37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렇게 미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세수입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로 인정을 받는다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험 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로 인정을 받는다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이러한 복지정책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인구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과 13.8%에 달하는 실업률을 이유로 미국의 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푸에르토리코 독립당의 시위

미국 내의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주민 문제는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미국 내의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로 편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이 미국 사회로 편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통 기피 직종에 종사한다는 직업의 이유도 있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언어적인 장벽의 탓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로 인정을 받는다면, 언어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미국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높아진 실업률의 불만을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점점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나, 푸에르토리코가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로 편입이 된다면 이러한 의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번 푸에르토리코의 주민투표는 2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었다. 첫 번째 문항은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문항은 지위를 변경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여기에서 약 61%의 주민들이 완전 편입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문항에서 약 47만 2천표가 무효표로 나오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무효표가 독립을 지지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체제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 54%에 불과한 상황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체제 변경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가 된다면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푸에르토리코는 공식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한 뒤 처음에는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영어의 강제 사용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정책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영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자치 정부이기 때문에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닐 수 있지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의 상황이 온다면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결국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주가 된다면 자치주가 되면서 다시 되찾아온 자신들의 언어 사용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셈인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다양한 사실 관계를 바라보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됨으로써, 미 연방정부와 푸에르토리코 자치 정부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검증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의 주 편입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본 후에야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이다. 하지

만 상대적으로 득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 발언은 케냐 방문과 마찬가지로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승한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푸에르토리코 주민투표의 결과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현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가 된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나온 결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심한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